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바람 없는 날의 계율

이번의 7일 정진은 인담의 무덤당한 평가로도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정작 우녀는 그녀 자신부터 먼저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치열한 정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통 모르는 상태였다.

그녀도 6일째 되는 날 밤에는 한동안 지난날의 한 시절로 돌아가 예성강 하류의 갈대밭에서 한아름 하얀 갈대를 따서 안고 돌아오며 흥얼거려던 그때의 높은 목소리를 내게 되어 방간의 다른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과연 잠을 자지

이 없었다. 바다 위의 파도도 파도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조각이라도 없이 마치 커다란 거울을 놓여 놓은 평면의 절대로 되었다.

갈매기들도 거의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없었다. 우주는 이따금 이렇게 밀령(命令)받은 철수를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만 남아 있으라는 날인가보군." 이라고 만화가 바다 밑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도 물고기 자취가 통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바다의 생활 및 10년의 체험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그림 · 조향숙

뒀다  
빈 원 새벽 바람에 풍경소리 울리고 작은 들 가을이슬에 파초가 기울었다 내가 와 고승과 한 자리에서 하룻밤 맑은 달소 값이 만금이라도

爐火寒中疎竹聲  
寂寥生白露沈沈  
路隔門外人南北  
松老巖邊月古今  
空翠滿庭隨語舌  
小爐秋夜散微心  
我來寄處何堪惜  
一衣清澆萬黃金

그러나 이 시는 고려 임춘의 시도 아니고 지금의 김중무 아니 불어의 시도 아니다. 임춘과 한동안 그윽한 우정을 나눈 바 있는 고려의 선승 석혜문(釋惠文)의 시 "보현원"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몇백년 뒤 임춘의 후신으로 태어난 불어에게는 전혀 전생의 벗이 지은 것이었다가 마치 입을 열자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입 밖으로 읊어져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어 자신도 그런 시가 즉흥으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읊어 낸 것일 따름이다.

만화가 이제 꺾었던 터라 반들반들한

## 수미산

21

않는 정진에서는 이런 엉뚱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튼 인담은 우녀에게 이번의 열사람이 처음으로 시도한 정진은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태종 속에서 구조된 무전 과환들은 숭배 구벽구벽 조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 일수였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딱 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우녀가 말하였다.

"스님, 이들에게 먼저 계(戒)를 주시지요. 계 없는 공부여서 그렇다고 여겨 집니다."

"계를 주고 받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더 두고 보아주세요. 남처사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를 받고 나서야 이 심의 수행자로 자처하는 바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녕 그렇게 된다면... 수계(授戒)의 의례를 치러야겠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정된 수계식은 정작 10일이 불에 뎀이 지난 뒤에야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수월의 병 치레가 있어서 그 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사람이 풀에서 오래 살다가 설과 같은 곳에 옮겨오면 그 병명(病名)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 오기까지 수월의 병길 내력도 얼마되지 않는 것이었던가.

수계식이 있기로 한 날 새벽에 사람들은 찬물로 온몸을 씻었다. 앞으로 날마다 그렇게 할 병수마찰을 겸한 목욕제계의 첫 걸음이었다.

엔일로 건반부터 바다에는 바람 한 점

오전 사시(巳時)에 접어들자마자 열락 없이 종소리가 났다. 종은 섬 종턱에 있는 갈대집 정사 옆의 아주 높다란 참나

**"먼저 계를 주시지요. 계 없는 공부여서 그렇다고 여겨 집니다" 수계식이 있기로 한 날 새벽에 사람들은 찬물로 온몸을 씻었다. 날마다 할 목욕제계의 첫 걸음이었다**

무 뒷부분 가지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로 노끈의 줄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조심스레 지으면 저 위에서 종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다.

오른 손이 잘려나간 남처사가 종 치는 일(鐘頭)을 맡았다. 그는 겨우 손목의 통증이 없어졌으나 아직도 진흙을 이겨 붙인 것을 떼지 않고 있었다. 우녀가 그에게 시간을 알리는 종치기 일을 맡긴 것은 그의 침울한 심경을 달래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고대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배워진 수계는 계사(戒師) 3사(三師) 이외에도 입회사(立會師) 7사(七師)가 있어야 하였다.

이를 줄다 간소화할 때 3사2중(三師二

중)의 5사(五師)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남방의 천태종(天台宗) 원통계(圓頓戒)에서는 석가모니 교조를 계화상(戒和尚), 문수보살을 갈마사(羯磨師) 미륵보살을 고수사(教授師)로 삼고 시방삼세(十方三世)의 일체 여러 부처를 중사(證師)로 해서 1인의 정계사(傳戒師)로 계를 전하고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욕도의 인담은 꿈 속의 그의 스승 담인을 계의 사주(師主)로 삼고 그 자신이 10계(十戒)를 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13조(十三條)의 난(難)과 10조의 차(遮)가 있는데 난이란 악(惡)을 뜻한다. 따라서 계를 받을 수 없는 계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첫째 이전에 계를 받았는데 그 계를 범함으로써 교단에서 쫓겨나 자(犯墮罪) 둘째 계를 지닌 여자 수행자에게 음행을 한 자(犯比丘尼), 셋째 권의와 이익을 목적으로 교단에 들어오려는 사람(賊心入道) 넷째 외도(外道-다른 종교)를 버리고 내도(內道-불법)에 귀의하여 계를 받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외도로 돌아간 자(壞二道) 다섯째 남성 성 불구자(不能男-黃門) 여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오역죄(五逆罪)를 범한 자, 열한번째부터 열두번째까지는 인간이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바다에는 파도소리 하나 없고 그들 9인의 수행자는 가장 경건한 작은 소리로 "네, 받아 지니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 인담은 꿈속의 스승 담인을 師主로 삼고 불살생계등 10계를 설하기 시작했다

있었다. 남자인 경우 진짜 남자인가를 묻는다.

또한 문둥병, 악성 종기의 병, 백내(白癩), 간소(乾瘠) 전광(癲狂) 등 다섯종류의 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욕도의 수계식에서는 다만 10계의 내용을 일체 생명의 지중환 바를 터득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비롯해서 말하고 그것을 받아 진실로 지켜나 가겠다는 것을 물었다.

바다에는 파도소리 하나 없고 그들 9인의 수행자는 가장 경건한 작은 소리로 "네, 받아 지니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범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하였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범명이 딱따고 사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10년동안 살아온 일들을 등불 켜 이야기하자면

반세상 헛된 공명이야 겨울 담겨 들어 다 보게나

높아 뒷사람 따라다니는 것 절로 우스워라

끝 생각 벼슬 생각 다 없어졌지만

十年苦活燈燈話  
半世功名抱鏡看  
自笑老來追後輩  
文惠官意一時拋

이것이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담지의 집에 모여서 즉흥으로 지었던 임춘의 칠언율(七言律) 후반부였던 것이다. 그 시를 읊조리는 불어 옆에 인담이 있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임춘의 시인지 불어가 지어부르는 시인지 그 누구도 알 바 없었다.

그런데 그런 불어의 시는 흥을 더해서 다른 시 한 수도 나왔다.

꼭 무욕도와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다.

향로 연기 자욱한 속에 밤이 울리는 데

깊숙한 방 고요하니 상서로운 흰 기운 이 난다

문학 땀은 길에는 남으로 북으로 가는 사람

바위가 늙은 소나무 예나 이제나 달이

저녁 햇빛을 받은 머리통을 돌려서 불어에게 부탁하였다.

"그 시가 참 좋게 들립니다. 한번 새겨서 자세히 풀이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듯 말투가 정중하였다.

불어가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가르쳐주는 것처럼 풀이하였다.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 끝줄의 만금(萬金) 운운하는 것이 좀 걸립니다."

라고 토를 달았다.

불어도 그 지적에 놀라며 수긍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내 생각과 똑 같으신지요. 내가 지었다 하나 나도 그 만금이란 것을 고치고 싶었지요... 공히게나마 고친다면 푸른 바다(滄海)로 하고 싶지요."

"하룻밤 맑은 달소 값이 푸른 바다로 다... 그것이 좋습니다."

"만화사님의 도(道)가 벌써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 오늘 낮에 받은 계에 벌써 어긋나게 하는 것 같아서 겁이 더러 나는 판입니다."

"아닙니다. 아님니다."

"아니라니요."

"아닌 것(眞然)이나 그런 것(眞然)이나 하나이지요."

"자 우리 말 장난은 삼가하십시오"라고 만화가 불어를 내심 꾸짖는 것이었다.

파도가 슬슬 추위와 함께 일기 시작하였다.

대중불교는 움직인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쁜것을 더욱 빠르게 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우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골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부리지 않고 현실로 풀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담이야기, 불교와 민속, 일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골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철사와 풀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흥법등**

**흥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흥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흥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억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일일이 풀철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만에 완성'되며 『기존 흥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각회와 고종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 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이외 장점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입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정열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흥법기회**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법 정음등    영가 등    실용선안 14461호  
의장등록 38353호

천도 광명등

연등 초법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강의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일을 불이던 방식을 연등초법등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일을 불림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걸지에 아미타불 변신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 생극락상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방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걸지에 부모모종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흥법등의 구조**

■ 조립방식    ■ 흥법등  
이중으로 떨어져 풀림합니다. 위치면 관찰원동 모양의 등이 됩니다.    결합  
관찰원동 모양    한번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철골 구조 조립 후 남장으로 된 8장의 걸지는 원일이 풀림 후 건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